

# 중고등학생의 의복태도, 의복착용시 영향집단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양여자대학 의상과

이 논문은 1998년도 한양여  
자대학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  
구되었음

홍 선 옥\*

목 차

I. 서론

II. 문헌 연구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의복은 각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적 기능이 있으며, 목적을 성취하고 심리적 안정감이나 안락감을 부여받도록 하는 도구적 기능이 있다.<sup>1)</sup>

새 천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성이 심화되고 생활공간이 가정 외에 학교, 친구집단, 사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이질적인 집단 및 다양한 가치와 접촉할 수 밖에 없으며, 과거보다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치열한 학업 및 입시경쟁에서의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민은 더욱 심화된다. 또한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청소년시기 동안 자신의 신장, 체격, 용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타인과 비교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기에는 성장에 맞추어 옷을 갖추는 것도 아주 중요 할 것<sup>2)</sup>으로 여겨지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과 욕구들이 이들의 의복태도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동기는 급격한 신체변화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있는 중고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의류학 분야에서 그들의 의복태도와

1)Roach, M.E. and Eicher, J. B. (1965). *Origins and Functions of Dress and Adornment*. in Roach, M. E. an Eicher, J.B.,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p.6.

2)Ryan, M. S. (1966).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pp.269-270.

옷을 입을 때 누구를 중요시하며 모델로 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의의 있는 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를 거부하는 태도, 의복을 착용할 때 누구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가를 성별, 학교별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의복태도 관련변인으로는 동조성, 비동조성, 정숙성, 유행성, 중요성과 의복규제 거부태도 관련변인으로는 학교규제거부, 부모규제거부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의복착용에 영향을 주는 집단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복 착용시 누구의 의견을 중요시하는가와 누구를 모델대상으로 삼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 및 학교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의 차이와 인구통계적 변인 및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 의복 착용시 영향집단에 관한 차이를 조사하는 데 있다.

## II. 문헌연구

### 1. 청소년기의 정의 및 특징

청소년기는 시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연구 경향에 의하면 학교제도에 의한 구분으로 청년 전기(13-16세), 청년 중기(17-19세), 청년 후기(20-23세)로 구분하기도 한다<sup>3)</sup>.

3)황응연·이기돈 (1992). 발달심리학. 서울: 배영사, pp.307-308.

이 시기 동안 청소년은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성숙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 전기에는 부모와 교사에 대한 비판적태도가 나타나며, 염세적 반향이 강해지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사회적 승인과 소속감을 갈망하게 되므로 동료집단에 더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sup>4)</sup> Ryan(1996)은 청소년기에는 의복이 자신의 일치성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의복이나 외모로써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청소년에게 의복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외모에 대한 자신감 사이에는 상당한 관련이 있다. 참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평균적인 다른 구성원들보다 의복이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스스로를 평균치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 학생들은 참여도에서도 다른 학생들보다 낮은 자세를 보인다고 하였다<sup>5)</sup>.

4)황응연·이기돈, 전계서, p.343.

5)Ryan, 전계서, pp.294-295.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에게 의복은 자신의 일치성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의복에 대한 자신감은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

#### (1) 의복태도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는 그의 의복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태도는 행동의 기초가 되며 개인의 의복태도 역시 의복행동의 기초가 된다. 즉 태도는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의복행동을 측정함으로써 그의 의복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조성, 비동조성, 정숙성, 유행성, 중요성 등의 5가지를 택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6) Aronson, E. (1972). *The Social Animal*(5th ed.). 윤진, 최상진 역 (1988). 사회 심리학-사회적동물, 제 5판. 탐구당, p.47.

동조성이란 실제 또는 가상의 인물이나 집단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자신의 행동과 의견을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6)</sup>. 의복의 동조성은 그 시대의 규범형성을 따르는 정도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며 스타일, 클래식, 패드, 유행 같은 의복동조성은 모두 한 사회의 규범적 구조의 부분으로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그들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의 차이에 따른 연구로 남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미실(1982)의 연구에 의하면, 의복행동변인중 동조성과 중요성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았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고등학생이 의복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유덕화(1991)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의 의복행동 가운데 동조성은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구로 Evans(1964)는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친구들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여학생은 타인과 다르게 옷을 입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up>7)</sup> 강혜원(1974)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동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의복의 동조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중요시하며, 연령이 더 높을수록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7) Evans, E. (1964). Motivation Underlying Selection and Wear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6(10), 742.

8) 강혜원 (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4.

비동조는 소속집단이 착용하는 의복과는 다른 의복착용을 의미한다. 강혜원(1995)은 의복규범에서의 이탈현상을 비동조라 칭하였다.<sup>9)</sup> 선행연구등을 살펴보면 Russell(1960)은 청소년기의 소녀들은 그들이 더 성숙하거나 자신감이 강하게 발달할수록 그들의 의복에서 준거집단에 대해 적게 동조한다고 시사했으며<sup>10)</sup>, 황혜영(1995)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의복규범과 동조성-개성의 차이분석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전체의 경우, 동조성-개성은 여성성 집단이 높게, 남성성 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박혜선(1990)의 연구결과에서는 반동조적인 복식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복에 대한 자신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반동조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천성에는 동조성과 개성이 상반되면서도 공존하며, 인간의 모든 행동은 동조성이 강할수록 개성이 약하고, 개성이 강할수록 동조성이 약하게 작용하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9) 강혜원 (1995). 의상사회 심리학. 서울 : 교문사, p.117.

10) 신옥순 (1977).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의 심리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1) Flugel, J.C. (1971).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 Press, Inc., pp.53-67.

12) Berg, J.H., Stephan, W.G. and Dodson, M. (1981). Attributional Modesty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5(5), 712.

13) Flugel, 전제서, pp.53-67.

정숙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및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정숙성은 습관의 문제이지 선천적인 특성은 아니다. Flugel(1971)은 정숙성을 장식성 및 보호성과 함께 의복착용의 기본적 동기로서 설명하였다. 그는 정숙성은 성적 과시, 억제, 나체 또는 호화롭거나 아름다운 의복억제, 혐오감, 수치심, 불만 억제, 신체의 부분적 노출이나 강조금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sup>11)</sup>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 볼 때, modesty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중요시하는데 그것은 여성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sup>12)</sup> 여성의 성적 본능은 신체 전체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3)</sup> 이명희(1983)의 연구결과에서도 정숙성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근희(1985)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복

14) 김영인, 강혜원(1981). 여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 교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를학회지, 5(2), 13-28.

15) 이춘자 (1988). 사회계층에 따른 대학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6) 이은영 (1997). 패션마켓팅. 제2판. 서울 : 교문사, p.14.

17) Kasier, S.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p.157-167.

18) Ryan, 전제서, p.284.

19) 김정호 (1978). 사회적층과 의복형태 : 서울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2(2), 45-52.

식행동의 성별 차이 결과에서 정숙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고 하였으며, 김정희(1989)연구에서도 정숙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연령별로 볼 때, 김영인, 강혜원(1981)의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숙에 대한 관심은 여중생이 여고생보다 더 높았고<sup>14)</sup>, 최혜선(1981)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고생은 여러 가지 의복행동 변인 중 예의성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예의성은 지학년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송기숙(1983)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여고생간에 정숙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sup>15)</sup>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년기에 있어서 정숙성의 기준은 성별, 연령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정숙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행이라는 의미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다. Nystrom(1928)은 유행을 특정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지배적 스타일이라 하였다.<sup>16)</sup> 또한 유행이란 개인적 차별화의 욕구와 사회적 공통화의 욕구인 두 가지의 심리적 지주로 지탱하고, 일정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승인되어 계속적으로 변화하리라고 기대되는 집합적 행동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sup>17)</sup>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인, 강혜원(1981)의 연구에서 유행에 대한 관심은 여고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원미숙, 강혜원(1983)에 의하면 유행에 있어서 고학년이 될수록 남자는 관심이 낮아지는 반면, 여자는 좀 더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혜원(1974)는 남,녀 모두 고학년이 됨에 따라 유행의 관심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최정희(1991)연구에서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상'인 학생이 '중'이나 '하'인 학생보다 의복디자인 및 유행에 관한 흥미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중요성이란 옷을 잘 입는 것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복이나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Ryan(1966)은 의복에 대한 관심은 12세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여 18세 때 최고조에 이르고, 18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의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18)</sup>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광희(1983)는 의복행동변인중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기평가를 높이는 여학생일수록 의복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희남(1985)의 연구에서도 의복행동변인 만족도, 정숙성, 중요성 가운데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의복의 중요성을 높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미실(1982)의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 연구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서 의복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층과 의복형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복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sup>19)</sup> 따라서, 중요성은 청소년들의 의복행동 및 태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의복규제거부태도

적절한 의복규제는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져 올바른 행동

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의복규제거부란 학교에서 제시한 복장규정을 이탈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의 의복규제거부란 의복을 선택할 때 부모가 의복을 규제하거나 간섭하는데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의복규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승진, 강혜원(1985)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에는 학생과 부모 및 교사의 견해차이에 기인한 의복규제에 대한 갈등이 있다고 밝혔다.<sup>20)</sup> 이는 학생과 부모 및 교사의 세대차이로 인한 의복의 허용기준에 차이를 볼 수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박미애(1991)의 연구결과, 여학생들은 독특성이 강할수록 복장규범을 중요시 하지 않고, 개성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중생보다 여고생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복이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에서의 의복규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양승진, 강혜원 (1985). 남자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9(1), 29-36.

### 3. 의복착용시 영향집단(중요한 타자 . 모델집단)

중요한 타자란 의복착용시 누구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복행동이 평가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의미한다. Vener and Hoffer(1965)의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사람들에게 의복착용시 중요한 타자는 어머니와 동료들이며 좀더 자란 10대들에게서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sup>21)</sup> 한편 복식행동을 모방하고자 하는 집단은 대개 그들이 속하기를 원하는 집단이다. 본보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가까운 동료이거나 약간 나이가 더 많고, 인기있고 좋은 외모의, 능숙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속성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Williams와 Eicher(1966)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의복에 관심을 주는 주된 이유는 의복을 통하여 또래집단에 동조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며, 그들의 준거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하였다.<sup>22)</sup>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대중매체의 유명인들, 즉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모방의 대상이라고 하였다.<sup>23)</sup>

21) Horn, M. J. and Gurel, L.M.(1981). The Second Skin : An I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lfflin., pp.139-141.

22) Williams, M. C. and Eicher, J. B. (1966). Teenagers Appearance and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58(6)

23) 이은영, 전계서, pp. 23-24.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의 모집단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남녀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이다.

선정된 표본집단은 서울시의 중고등학생 인구비율에 따라 추출되었다. 서울시의 중고등학생 인구분포는 97년 『서울교육통계연보』를 참조하였으며, 이 인구비율에 따라 지역, 성별, 계열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즉 사회계층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강남, 강북지역을 균형있게 선정하였고, 중고등학교 비율, 계열별 비율을 맞추어 학교를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1차 작성된 질문지는 1997년

12월 초에 실시된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고, 본조사는 1997년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학교는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일반계열 4개교, 실업계열 2개교였다. 중학교는 2,3학년, 고등학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학생은 438명, 고등학생은 663명으로, 모두 1201명의 학생들이 조사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151부를 제외한 1050부만을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 2. 측정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의복태도와 의복규제거부에 대한 태도, 의복착용시 영향집단인 중요한 타자 및 모델집단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척도, 인구통계적 변인 및 학업성적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의복태도를 조사하는 변인으로는 동조성 비동조성, 정숙성, 유행성, 중요성을 측정하였으며, 문헌조사와 선행연구(강혜원, 1974; 박혜선, 1990; 정미실, 1990; 박광희, 1983; 권영남, 1984; 이명희, 1983; 김정희, 1989)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동조성은 8문항, 비동조성은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정숙성, 유행성, 중요성은 각각 5문항씩을 사용하였다. 척도 방법은 5점 Likert 법으로 측정하였다.

의복규제거부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는 변인으로는 학교의 의복규제거부, 부모의 의복규제거부를 측정하였다. 학교의 의복규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유덕화(1991), 박미애(1991)의 연구에서 제시한 31개 항목의 복장규정과 학생규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의 의복규제거부조사는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단계 Likert법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의복규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김양진(1991)의 부모의 의복규제 측면의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단계 Likert법으로 측정하였다.

의복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밝히기 위한 조사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의견을 어느정도 중요시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타자로서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이성친구, 동성친구, 학교선배를 제시하였고, 어느정도 따르고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의 모델집단으로는 선생님, 부모님, 친구, 학교선배, 매스미디어 스타를 제시하여 5단계 Likert법으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교, 학업성적, 사회계층, 부모의 학력수준, 친부모 동거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사회계층은 주관적 측정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상류층의 상, 중, 하와 중류층의 상, 중, 하와 하류층의 상, 중, 하의 9단계로 나누었으나 통계처리 과정에서 재분류하였다. 상류층의 상, 중, 하의 상류층으로, 중류층의 상을 중상류층, 중류층의 중은 중류층, 중류층의 하의 중하류층, 하류층의 상, 중, 하의 하류층으로 분류하여, 1점에서 5점까지 주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계층의 분포는 상위계층은 5.9%, 중상위계층은 22%, 중위계층은 49.6%, 중하위계층은 14.4%, 하위계층은 8.1%이었다.

부모의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이상의 5단계로 측정하였다. 분석시에는 중학교 졸업이하를 1점, 고등학교 졸업을 2점, 대학교 졸업이상을 3점으로 재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아버지 학력은 전체 중 51.6%가 고등학교 졸업이고, 대학 졸업이상이 34.5%, 중학교 졸업이하가 13.9%로 분포되었다. 반면에 어머니의 학력은 전체중 56.9%가 고등학교 졸업이었고, 대학 졸업이상이 17.5%, 중학교 졸업이하가 25.6%로 분포되었다.

친부모 동거여부 측정은 아버지인 경우와 어머니인 경우를 따로 질문하였고, 각기 친부모가 계심, 계부·계모가 계심, 이혼·사별 등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시에는 친부모가 계시는 경우 1점, 친부모가 아닌경우, 이혼, 사별, 계부·계모등 친부모가 아닌 경우는 2점으로 재부호화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친부모 동거여부 비율은 친부모인 경우가 92.6%,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7.4%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측정은 반에서의 등수를 1-5등, 6-10등, 11-15등, 16-20등, 21-25등, 26-30등, 31-35등, 36-40등, 41등 초과 등으로 분류하여 1점에서 5점까지 5집단으로 나누어 재부호화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볼 수 있다. 1-10등까지 24.5%, 11-20등까지 25.6%, 21-30등까지 23%, 31-40등까지 17.4%, 41등 이하는 9.4%로 나타났는데, 41등이하의 분포가 적은 이유는 중학교나 실업고등학교 경우에는 학급의 인원이 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성 및 학교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의 차이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조사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에 의하면 동조성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도 의복의 동조성이 더 높았다. 이는 Williams, Eicher(1966), 강혜원(1974), 이명희(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됨을 볼 수 있다. 한편 중고등학생별로 비교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동조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미실(1982), 유덕화(1991)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동조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다름을 보여준다.

정숙성은 여중생이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남녀고등학생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인, 강혜원(1981), 최혜선(1981), 권혜옥(1983)연구 등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정숙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정숙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송기숙(1983)의 연구결과와는 일

치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매스미디어 영향의 증가와 사회개방추세에 따른 청소년, 특히 여중생의 조속화 현상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행성은 여중생이 다른 집단과 차이를 나타냈으며, 남자 중고생과 여고생 사이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여중생이 다른 집단보다 유행성이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중생시기에 유행추구가 하나의 동조현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일 것으로 보이며, 여중생의 의복행동이 점차 조속화 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영인, 강혜원(1981)에 의하면 유행에 있어서 고학년이 될수록 여자는 좀 더 관심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성은 전체 평균치를 볼 때 의복태도변인 가운데 가장 높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의복의 중요성에 대해 더 인식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중학생 시절보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의복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를 더 의식하고 미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의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의복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으로 정미실(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사회활동이 활발하며 이성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정미실(1982)연구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표1〉 성 및 학교에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의 차이

집단 의복변인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1050)	F
	남 (N=224)	여 (N=194)	남 (N=194)	여 (N=194)		
동조성	2.576(B)	3.022(A)	2.761(B)	3.018(A)	2.861	21,315***
비동조성	2.896	2.900	2.841	2.949	2.895	1.419
정속성	3.173(A)	3.016(B)	3.198(A)	3.279(A)	3.182	7.553***
유행성	3.090(B)	3.396(A)	3.028(B)	3.118(B)	3.135	11.011***
중요성	3.568(C)	3.908(A)	3.706(B)	3.872(A)	3.761	22.099***
학교의 의복 규제거부	2.638(C)	3.168(A)	2.785(B)	3.032(A)	2.895	21,522***
부모의 의복 규제거부	2.835(B)	2.872(A)	2.681(C)	2.596(C)	2.725	4.969***

\*\*\*P<0.001, \*\*P<0.01, \*P<0.05      문자는 A,B,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학교의 의복규제거부에서는 중요성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학교의 의복규제거부를 더 심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학교의 의복규제거부 정도가 남학생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개성적이며 독특성이 높는데 이러한 성향이 높을수록 덜 규범적이라고 한 박미애(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의복규제거부는 성 및 학교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여중생들은 부모의 의복규제거부가 높은 반면 여고생은 부모의 의복규제거부는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고생보다는 여중생이 반항기, 사춘기, 불안기를 더욱 심각하게 겪는 시기로서 부모에 대한 반항이 의복에서 돌출되는 현상이라고 해석된다.

## 2. 인구통계적 변인 및 학업성적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 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 및 학업성적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2> 및 <표3>과 같다.

<표2>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동조성, 비동조성은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숙성은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이 대체로 정숙성이 높았다. 특히 학업성적이 31등 이하인 학생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이외 다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서 정숙성이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행성에서도 학업성적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유행성이 민감하며 반면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은 유행성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의복의 중요성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부의 학력과 친부모 여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남학생은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남학생보다 의복을 중요시하였고, 친부모가 아닌 남학생이 친부모가 있는 남학생에 비하여 의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의복규제거부는 남학생의 학업성적과 부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 학교의 의복규제거부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의 의복규제의 거부정도가 높았으며, 부의 학력이 고졸인 남학생이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 학력인 남학생보다 학교의 의복규제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의복규제거부에서도 학업성적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이 10등 이상인 우수학생과 나머지 그룹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학업성적이 10등 이상인 남학생은 부모의 의복규제거부가 낮은 편이고, 나머지 그룹의 남학생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우수학생보다 부모의 의복규제거부를 심하게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의복규제거부는 부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 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남학생이 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학생보다 부모의 의복규제거부 정도가 낮았다. 이는 남학생의 의복에 대한 관심과 간섭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하는 편이며, 학력이 높은 어머니는 좀더 자율적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3>을 보면, 여학생의 경우 동조성은 인구통계적 변인 및 학업성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비동조성은 사회계층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계층이 상류계층에 속한 여학생은 하류계층인 여학생에 비하여

(표 2) 남학생의 인구통계적 변인 및 학업성적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의 차이 (N=555)

변인	의복태도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						
		동조성	비동조성	정숙성	유행성	중요성	학교의 의복규제거부	부모의 의복규제거부
학업성적	1- 10등	2.659	2.893	3.331(A)	2.932(C)	3.616	2.436(D)	2.491(B)
	11-20등	2.726	2.848	3.164(B)	2.990(BC)	3.666	2.777(BC)	2.821(A)
	21-30등	2.660	2.727	3.194(AB)	3.063(AB)	3.648	2.687(C)	2.758(A)
	31-40등	2.808	2.946	3.122(B)	3.181(AB)	3.710	2.918(AB)	2.858(A)
	41등이하	2.853	2.996	2.958(C)	3.315(A)	3.606	3.147(A)	2.995(A)
	전 체	2.719	2.863	3.188	3.053	3.651	2.726	2.743
	F	1.568	2.363	4.985***	3.645**	0.577	12.167***	4.583**
	사회계층	상	2.758	2.880	3.133	3.000	3.746	2.671
중상		2.771	2.975	3.236	3.075	3.649	2.763	2.704
중		2.677	2.820	3.162	3.064	3.640	2.717	2.705
중하		2.801	2.816	3.196	3.101	3.610	2.719	2.949
하		2.652	2.857	3.243	2.900	3.696	2.725	2.848
전 체		2.719	2.863	3.188	3.053	3.651	2.726	2.743
F		0.930	1.345	0.579	0.665	0.554	0.141	1.448
부의 학력	중졸이하	2.732	2.738	3.282	3.019	3.683(A)	2.655(B)	2.777
	고졸	2.736	2.866	3.170	3.109	3.698(A)	2.820(A)	2.790
	대졸이상	2.690	2.913	3.173	2.991	3.571(B)	2.624(B)	2.662
	전 체	2.719	2.863	3.188	3.053	3.651	2.726	2.743
	F	0.302	2.109	1.350	1.566	3.584*	4.367*	1.211
모의 학력	중졸이하	2.713	2.817	3.215	3.014	3.681	2.678	2.848(A)
	고졸	2.745	2.875	3.183	3.100	3.666	2.775	2.757(A)
	대졸이상	2.649	2.895	3.165	2.968	3.559	2.642	2.547(B)
	전 체	2.719	2.863	3.188	3.053	3.651	2.726	2.743
	F	0.859	0.538	0.257	1.484	1.917	1.586	3.413*
친부모 여부	친부모	2.709	2.860	3.197	3.042	3.637	2.710	2.746
	친부모 아님	2.882	2.924	3.049	3.224	3.858	2.966	2.691
	t	-0.51	-0.55	1.48	-1.39	-2.40*	-1.93	0.34

\*\*\*P<0.001, \*\*P<0.01, \*P<0.05 문자 A,B,C,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표 3) 여학생의 인구통계변인 및 학업성적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의 차이 (N=495)

변인	의복태도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						
		동조성	비동조성	정숙성	유행성	중요성	학교의 의복규제거부	부모의 의복규제거부
학업성적	1-10등	2.907	2.831	3.384(A)	3.088(B)	3.919	2.727(B)	2.538
	11-20등	3.006	2.872	3.275(AB)	3.073(B)	3.818	2.913(B)	2.744
	21-30등	3.077	3.017	3.031(C)	3.353(A)	3.874	3.301(A)	2.689
	31-40등	3.135	2.976	3.104(BC)	3.356(A)	3.904	3.265(A)	2.914
	41등이하	2.954	3.009	2.918(C)	3.409(A)	3.989	3.507(A)	2.628
	전 체	3.019	2.929	3.176	3.227	3.886	3.085	2.705
	F	2.285	1.715	7.359***	4.924***	1.270	14.961***	2.135
사회계층	상	3.076	3.181(A)	3.144	3.464	3.902	3.273	2.955
	중상	3.076	3.055(A)	3.168	3.261	3.951	3.152	2.641
	중	3.010	2.927(AB)	3.199	3.204	3.859	3.058	2.625
	중하	2.957	2.800(B)	3.160	3.236	3.870	2.968	2.827
	하	3.026	2.733(B)	3.094	3.139	3.919	3.214	3.006
	전 체	3.019	2.929	3.176	3.227	3.886	3.085	2.705
	F	0.500	3.485**	0.252	0.851	0.676	1.206	2.314
부의 학력	중졸이하	2.930	2.755	3.282	3.113	3.868	2.979	2.673
	고졸	3.073	2.957	3.193	3.211	3.897	3.26	2.743
	대졸이상	2.965	2.950	3.108	3.296	3.874	3.059	2.655
	전 체	3.019	2.929	3.176	3.227	3.886	3.085	2.705
	F	2.490	2.557	1.774	1.570	0.158	0.971	0.483
모의 학력	중졸이하	2.981	2.845	3.324(A)	3.100	3.867	2.961	2.738
	고졸	3.050	2.963	3.126(B)	3.274	3.898	3.155	2.689
	대졸이상	2.968	2.937	3.129(B)	3.253	3.874	3.028	2.708
	전 체	3.019	2.929	3.176	3.227	3.886	3.085	2.705
	F	0.947	1.430	4.235**	2.574	0.193	2.768	0.116
친부모 여부	친부모	3.024	2.934	3.177	3.231	3.879	3.081	2.700
	친부모 아님	2.966	0.882	3.167	3.186	3.955	3.129	2.750
	t	0.62	0.51	1.10	0.39	-0.96	-0.38	-0.33

\*\*\*P<0.001, \*\*P<0.01, \*P<0.05 문자 A,B,C,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비동조성이 높았다. 이는 여학생의 경제적 형편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진다.

정숙성은 학업성취도, 모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은 여학생이 학업성적이 낮은 여학생에 비하여 의복에서 정숙성이 높았으며, 이는 남학생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모의 학력이 중졸인 여학생은 모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여학생보다 정숙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딸의 의복에 좀더 자율적으로 대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유행성은 학업성적에서만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위 20등 이상인 학생과 학업성적이 21등 이하인 학생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학업성적이 21등 이하인 학생은 20등 이상인 학생보다 유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유행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상위인 여학생이 낮은 여학생보다 유행에 관한 흥미가 낮다고 한 최정희(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중요성은 남학생과는 달리 인구통계적 변인 및 학업성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즉 여학생은 인구통계적 변인이나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의복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의 의복규제거부에서는 학업성적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위 20등 이상인 학생과 성적이 21등 이하인 학생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이 21등 이하인 학생은 상위 20등 이상인 학생보다 학교의 의복규제를 강하게 거부하였다. 이는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의복규제에 더 순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Vogel(1966)의 연구결과가 지지됨을 볼 수 있다.

### 3. 성 및 학교에 따른 의복착용시 영향집단의 차이

성 및 학교에 따른 의복착용시 영향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에서 볼때, 의복착용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타자중에서 선생님, 동성친구, 학교선배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의복을 착용할 때 선생님의 의견이나 평가를 중요시하는 정도는 여중생이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특히 여중생이 사춘기, 반항기를 겪는 시기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동성친구의 의견이나 평가를 중요시하는 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 착용할 때 동성친구의 의견이나 평가를 더 중요시하였다. 또한 학교선배의 의견이나 평가를 중요시하는 정도는 여중생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한편 모델집단에서 의복을 착용할 때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집단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을 착용할 때 부모님을 기준으로 삼거나 모델로 하는 경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님을 모델로 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정도에서는 여자 중교

등학생이 높았고, 반면에 남자고등학생은 가장 낮은 편으로 부모님의 옷차림에 관심이 적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의복에 관심이 적다는 강혜원(1974)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모델집단 가운데 친구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남녀학생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학교선배를 모델로 삼는 정도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은 영향을 받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스 미디어 스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여중생이며, 반면 남자고등학생이 가장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표 4) 성 및 학교에 따른 의복착용시 영향집단의 차이

영향집단	집단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1050)	F
		남(n=224)	여(n=194)	남(n=331)	여(n=301)		
중요한 타자	선생님	2.634(A)	2.356(B)	2.496(AB)	2.615(A)	2.533	3.342*
	아버지	3.134	3.010	2.946	2.937	2.995	2.158
	어머니	3.147	3.077	3.073	3.130	3.106	0.420
	이성친구	3.598	3.825	3.737	3.641	3.696	2.073
	동성친구	3.482(B)	3.747(A)	3.429(B)	3.665(A)	3.567	6.486***
	학교선배	2.772(B)	3.052(A)	2.511(C)	2.874(AB)	2.771	10.463***
모델 집단	선생님	2.018	1.907	1.976	2.126	2.015	2.334
	부모님	2.482(AB)	2.644(A)	2.411(B)	2.635(A)	2.533	3.301*
	친구	3.393(B)	3.722(A)	3.417(B)	3.578(A)	3.514	6.642***
	학교선배	2.692(AB)	2.876(A)	2.520(B)	2.665(B)	2.664	4.664**
	매스미디어 스타	2.946(BC)	3.278(A)	2.780(C)	3.000(B)	2.971	8.294***

\*\*\*P<0.001, \*\*P<0.01, \*P<0.05

문자는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있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성 및 학교), 인구통계적 특성 및 학업성적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와 의복착용시 영향집단에 관한 차이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 및 학교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의 차이를 보면, 비동조성을 제외하고 모든 의복변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동조성은 중고등학생 모두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학교별로 비교해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동조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숙성은 다른 집단보다 여중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행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여중생이 훨씬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의복중요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중요성이 높았다. 학교의 의복규제거부는 남학생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심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의복규제거부는 특히 여중생이 높은 반면, 여고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인구 통계적변인 및 학업성적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태도의 차이를 보면, 남녀학생 모두는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대체로 정숙성이 낮았다. 남학생인 경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유행성, 학교의 의복규제거부, 부모의 의복규제거부는 높았으나, 여학생은 유행성, 학교의 의복규제거부가 높았다. 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남학생은 의복의 중요성이 높았으며, 친부모가 아닌 남학생이 친부모인 남학생에 비해 의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남학생은 부모의 의복규제를 강하게 거부하였으며, 여학생인 경우는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숙성이 높게 나타났다.

3. 성 및 학교에 따른 의복착용시 중요한 타자 및 모델집단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여자중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인 친구, 부모님, 학교선배, 매스미디어 스타의 옷차림을 모델로 하거나 그들의 의견이나 평가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매스미디어 스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은 의복착용시 선생님 및 동성친구의 평가를 중요시하였고 부모님 및 친구들의 옷차림을 모델로 하는 경향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남자고등학생은 중요한 타자나 모델집단으로부터의 영향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적었으며, 특히 매스미디어 스타의 옷차림을 모델로 하는 경향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녀학생들만을 선정하였고, 근로청소년이나 기타 청소년 집단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다른 의복태도 측정변인외에 다각적 의복변인의 측면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 관계. 연세논총, 11, 349-374.
2. ---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 교문사.
3. 권영남(1984). 여자중학생의 의복행동과 지능과의 관계 : 대구시 여자중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4. 권혜옥(1983). 교복 자율화 이후 여자 중·고등학생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5. 김영인, 강혜원(1981).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 교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2), 13-28.
6. 김정호(1978). 사회계층과 의복행태 : 서울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 45-52
7. 김정희(1989). 서울시 남여고교생의 교복·자유복 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8. 박광희(1983).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9. 박미애(1991).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복장규범에 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및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0. 박혜선(1990). 의복동조에 관한 연구 : 의복동조동기의 유형, 관련변인 및 준거 집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1. 송기숙(1983). 여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 요인분석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련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2. 신옥순(1977).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의 심리적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3. 양승진, 강혜원(1985). 남자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9(1), 29-36.
14. 원미숙, 강혜원(1983).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 : 남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15. 유덕화(1991).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복식행동과 복장규범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16. 이명희(1983).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7. 이은영(1997). 패션마케팅. 제2판. 서울 : 교문사.
18. 이춘자(1988). 사회계층에 따른 대학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9. 이희남(1985).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 및 신체충실지수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 상지대학 논문집, 6.
- 20.전근희(1985). 고교생의 복식행동과 생활양식유형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21.정미실(1982).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 의복의 동조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22.---(1990). 규범적 및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23.최정희(1991). 여고생의 의복 흥미도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24.최혜선(1981).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전감-불안감과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의 여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25.황응연, 이기돈(1992). 발달심리학. 서울 : 배영사.
- 26.황혜영(1995). 남녀 대학생의 의복규범에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자아정체감 및 성격할 태도간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27.Aronson, E.(1972). The Social Animal(5th ed.), 윤진.최상진 역 (1988). 사회 심리학-사회적동물, 제 5판. 탐구당.
- 28.Berg, J.H., Stephan, W.G. and Dodson, M. (1981). Attributional Modesty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5(5), 712.
- 29.Evans, E.(1964). Motivation Underlying Selection and Wear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6(10), 742
- 30.Flugel, J.C.(1971). The Psychology of Clothes.NewYork : International Univ. Press, Inc.
- 31.Horn, M. J. and Gurel, L.M.(1981).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32.Kasier, S.B.(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 33.Roach, M.E. and Eicher, J. B.(1965). Origins and Functions of Dress and Adornment. in Roach, M. E. and Eicher, J.B.,Eds.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John Wiley and Sons.
- 34.Ryan, M. S.(1966).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35.Williams, M. C. and Eicher, J. B.(1966). Teenagers Appearance and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58(6).



## Abstact

###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lothing Attitude, Influential Groups in Putting on Clothing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un, Ok-Hong\*

\*Dept. of Apparel  
Hanyang Women's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clear the difference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lothing attitude, clothing regulation attitude and influential groups in putting on clothing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variables and scholar score.

For clothing attitude and clothing regulation attitude, I examined 5 variables of conformity, individuality, modesty, fashion, clothing importance and 2 variables of refusal against regulation from school and parent. The influential groups were divided into 'significant others' of teacher, father, mother, other sex friend, same sex friend, and senior and 'model group' of teacher, parent, friend and mass media star.

My subject was 105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resident in Seoul; sample groups were selected, considered their resident area, gender and the kind of school. As for the analysing method, I adopted SPSS/PC+Program to practice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Range 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re was difference in cloth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sex and school except nonconformity. Conformity and clothing importance were higher for than boys in both middle and high schools. In particular, middle school boys' clothing importance were lowest. Compared with middle and high school boys, middle school girls considered fashion most seriously and modesty least. For both sexes, the lower the scholar score, the worst the modesty. While the lower the scholar score, the higher the fashion, the refusals against clothing regulation from school and parent for boys, but the fashion and the refusals against regulation from school for girls. As for boy, the lower his father's educational career was, the higher the

clothing importance was, and the lower his mother's educational career, the fiercer he refused against clothing regulation from school. As for the influence on significant other/model groups when wearing clothing, girls were more influenced than boys.